

파사석탑 전설 되살려 가야 불교 복원 이룬다

향토사학자 허/명/철 금강병원장

김해 구산동 구지봉 산자락에는 사적 제 74호인 가야 수로왕비 허황옥의 무덤이 있다. 무덤 앞에 가면 허황후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야로 시집오면서 가져 온 탑이라고 전하는 파사석탑(婆娑石塔)을 만날 수 있다. 닳을 대로 닳은 20cm 두께의 불그스레한 돌 다섯 개를 쌓아놓은 이 탑은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풍량을 잠재워 안전 항해를 하게 해 준다'는 전설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탑신의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파사석탑 주위에는 탑을 보호하기 위한 전각이 세워졌고 3년 전에는 지방문화재로 등록되기까지 했다.

파사석탑의 이 같은 변화를 이끌어낸 장본인은 김해 금강병원 허명철(59·향토사학자) 원장. 1981년부터 김해의 문화사를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87년 <가야불교의 고찰>이라는 저서를 낸 바 있는 허 원장은 가야불교에서 빠뜨릴 수 없는 허황옥과 파사석탑의 정체를 추적했다. 문화재관리국이나 불교계에서조차 탑으로 인정하지 않아 '돌무더기'로 방치되었던 파사석탑에 대한 허 원장의 짝사랑이 시작된 것은 이듬해인 1988년.



파사석탑의 문양을 설명하는 허명철 원장. 이 문양은 인도의 아진타 열로아니식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임이 입증됐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어떻게 하면 학문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여간 고민이 아니었지요. 허황후의 숨결을 느끼며 파사석탑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갔습니다. 탑 앞에 앉아 좌선도 하고 아무만지도 하며 한시도 탑을 잊어본 적이 없었죠.”

환자를 진료하는 틈틈이, 심지어 점심 식사까지 걸러가며 6개월 동안 200회가 넘게 파사석탑을 드나들자 ‘탑에 미쳤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그러나 허 원장의 파사석탑에 대한 열정은 가라앉지 않았다.

파사석에 담배술 피를 묻히면 피가 응고되지 않고 흘러내린다는 기록을 토대로 실험한 결과 탑의 재질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파사석을 밝혀냈다. 인도에서 건너온 탑인지를 밝히기 위해 우리나라 석탑과 인도의 석탑에 관한 문헌을 모조리 뒤지시 시작했다. 그것도 모자라 허 원장은 일반적인 것과 모양이 다르다는 탑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파사석탑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석탑 및 부도와는 형태나 구조 면에서 아주 판이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때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온 게 분명하다는 심증이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허황후가 파사석탑을 갖고 왔다는 AD 48년 경 인도에서 조성됐던 탑과 파사석탑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파사석탑과 인도 석탑간의 연관성을 밝혀낸다면 한국 최초로 가야에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가야불교사 복원의 실마리를 찾는 셈이었다. 허 원장의 가야사 복원을 향한 꿈은 더욱 간절해졌고 파사석탑 앞에서의 좌선과 기도는 더욱 잦아졌다. 기도 덕분이었을까? 파사석탑 밑 땅속에서 백의관음보살상이 두 손을 내밀며 당겨달라고 하는 꿈을 꾸고 파사석탑의 밑부분을 자세히 살핀 결과, 탑돌 아래 부분에 인도 사원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문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허 원장은 드디어 파사석탑의 분해 재조립을 결심했다.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사각형 원형을 석고로 본을 떠 복원했더니 인도 동굴사원인 아진타 열로아니식에서 볼 수

있는 탑의 형식임을 입증하게 됐다.

“탑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대로 인도에서 건너온 것이 분명하며 가야불교사를 입증할 유일한 국보급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허 원장은 강조했다. 금강병원 복도에 전시된 석고 파사석탑 원형은 수많은 환자들과 직원들이 오가는 복도를 지키며 허 원장의 가야사 복원을 향한 원력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파사석탑과의 인연에 이어 허 원장은 또 다른 돌과의 특이

외면시 되던 '돌무더기' 학문적으로 밝혀 200회 넘는 탑 답사 '탑에 미쳤다' 소리도 전국돌며 문헌조사, 구조·재질·형태 파악 탑돌이 부분 문양발견으로 인도 전래 입증



한 인연을 맺었다. 이 돌은 김해 동림사 입구에 가면 만날 수 있다. 파사석탑 연구에 한창이던 어느 날, 발자국을 따라 산을 오르니 웅이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꿈을 꾸던 뒤 허 원장은 가야인의 후예라는 자긍심으로 관음보살의 원력을 김해 시민들의 가슴에 심어주기 위해 신어산 자락에 관음보살상 조성을 발원했다. 우여곡절 끝에

에 이리에서 높이 100m, 폭 3m, 무게 360여 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을 구할 수 있었다.

“흠집 하나 없는 돌을 캐내고 그 돌을 옮기기 위해 외국에서 차를 수배하고, 차체를 이어 붙이고, 서울 인천 등지에서 크레인을 수배하고 돌의 무게 때문에 수시로 터지는 타이어를 교체해 가며 바지선에 옮겨 싣고 부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부처님의 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과정에서 세계의 명상서적을 두루 읽고 명상 수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왔던 허 원장은 심력(心力)을 온통 쏟아 부었다. 산신각 기도 원력으로 태어나 일월성신을 향한 절을 하며 경외심을 품고 자란 허 원장은 고등학교 때 어느 스님의 권유로 관음보살 백연화 수진연인 ‘옵 바이라 미라야 사바하’를 뜻도 모르고 일삼아 외워왔으니 관음보살 조성을 위한 일체의 과정은 모두 부처님의 힘과 관음의 원력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 세상에 내가 한 것은 없으며 다만 심부름에 나를 써준 것에 감사할 뿐”이라는 허 원장은 “김해 시민들의 마음이 모이면 관음보살 조성이 현실화 될 것으로 믿는다”며 무위(無爲)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꿈은 바빠도 마음은 한가해야 함이 없는 행이 아니겠어요? 지금 3만평에 달하는 병원 건립중이라 몸은 눈코 뜰 새 없지만 모두 헛일이고 오로지 그 근원을 살피는 것만이 진짜배기입니다. 방귀를 끼었으면 냄새나 소리에 속지 말고 그 방귀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물어 들어가야 하잖아요.” 허 원장의 역사 연구는 근원을 알고자 했던 그의 수행 이력과 맞닿아 있음을 느끼게 했다.

“놀라라, 놀라라, 다 놀라라. 무주공산에 한 돌건뎛이다. 요 뭐요?” 허 원장이 스스로 만들어 지니고 있다는 화두처럼 흰 고무신을 신고 파사석탑 앞에 선 허명철 원장은 이미 파사석탑에 대한 사랑마저 놓아버린 듯 초연해 보였다.

글=천미희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김해 구산동 구지봉에 있는 파사석탑.

신개발 玉佛 (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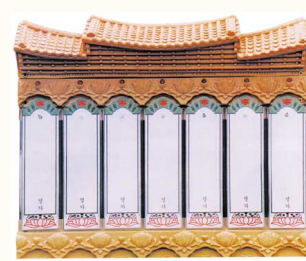
천연 비취 옥을 이용, 입속 성형기는 최첨단 공법으로 기존 옥불 보다 더욱 정교하고 정밀하며 가격 면에서도 월등히 저렴합니다.
비취 옥 불상 조성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종류 : 석가, 관세음, 지장, 약사불 외 각종 옥불 가능 ■ 크기 : 7인치, 1자, 2자반, 3자 ■ 108불, 500불, 1,000불, 3,000불, 10,000불

- 1. 변색이 전혀 없어 장기간 깨끗하고 미려합니다.
- 2. 옥에서 기(氣)가 발생하여 건강에 좋습니다.
- 3. 개금할 필요가 없어 처후 금전 부담이 없습니다.
- 4. 금이 가거나 깨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 5. 해당 내부나 외부에도 모실 수 있습니다.
- 6. 가격이 저렴합니다.
- 7. 화재시 타거나 변색이 전혀 없습니다.

영가위패단



의 장 등 록 제 20819호
실용신안출원 제 15466호

영가위패단

1. 혁신적인 기술로 최첨단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여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2. 자석과 특수가공 철판을 사용하여 탈부착이 용이하며 수정이크린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변색되지 않고 깨끗합니다.
3. 위계 한위 한위마다 연화문양을 조각하였고, 상단에는 단집 문양을 넣어 현대감과 불교 미술적 조화로움과 조화롭게 조형합니다.
4. 장소를 적게 차지하여 같은 장소에 많은 영가를 모실 수 있습니다.
5. 특수 반도체 전구를 사용하여 반영구적이며 전기료도 거의 들어가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6. 위계 한위 한위마다 인등처럼 불을 밝혀 미려하고 정밀합니다.

저희 정심원 제품은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유통을 줄이고자 불교용품점에는 일체 납품하지 않고 사찰에 직접 보급합니다.

영가위패·인등·옥불 전문

정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핸드폰 011-724-0455